

▶ 소비자·가족자원경영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식품외부화에 대한 영향요인

한 미 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전공 석사과정)

김 경 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소득이나 식품 가격 등 경제학적 요인의 변화와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 그리고 생활의 서구화 등 사회적 변화로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의 식료품 소비구조가 다양화하고 있다. 총 소비지출 대비 식품소비지출 비중은 1985년 37.5%에서 2005년 26.4%로 11.1%p로 감소하였다. 주식비의 비중도 24.7%에서 14.1%로 감소하였으나, 외식비 및 가공식품비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통계청(2006)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외식비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27만 여원으로 전체 식료품 지출액 56만원의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식료품 소비 분야에서 외식이나 가공식품 등 외부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산업화가 진전된 여러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Becker(1993)의 가계생산이론에 따르면 가계는 최종재(commodities)를 생산하기 위해 시장재화와 시간을 투입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자원의 가치가 더 높아 시간을 재화로 대체하기 위해 시장재화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고 한다. 외식과 가공식품의 증가는 식품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노동 에너지를 시장재화로 대체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식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도·소매업통계조사(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식업체 수는 1991년 21만여 개소에서 2003년에는 51만여 개소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공식품 시장도 초기의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위주에서 인스턴트, 레토르트, 건조식품,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유기가공식품, 즉석식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리시간과 노동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둔 항목인 외식비와 7개 분야의 가공식품 소비를 더하여 식품외부화로 정의(신인자 & 이병오, 2004)하며,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4년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자료 중 10%를 무작위 추출한 총 8335가구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식품외부화율은 52.6%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이 중 외식비가 43.6%(식사대 35.2%, 음주대 8.4%), 가공식품비가 9%를 차지하였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곡물가공식품 소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채소가공, 육류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외부화율에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소득과 미혼자녀수, 주부의 취업유무, 가구주 학력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부가 취업한 경우 식품외부화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중 식품외부화율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가계소득이었으며 이 네 개의 변수가 식품외부화율 변동의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외부화 요소 중 식사비는 가계소득(+), 미혼자녀수(+), 주부의 취업유무(+), 가구주 학력(+), 음주비는 주부취업(+), 가구주 연령(+), 가계소득(+), 가공식품비는 가계소득(+), 미혼자녀수(+), 주부의 취업유무(-),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이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